이천이십삼년 | 겨울호(통권 23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신년인사
남북, 해외 겨레의 참된 소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겨레의 창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 문명사의 성숙한 미래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우리말 보물찾기
하염없이, 그 기나긴 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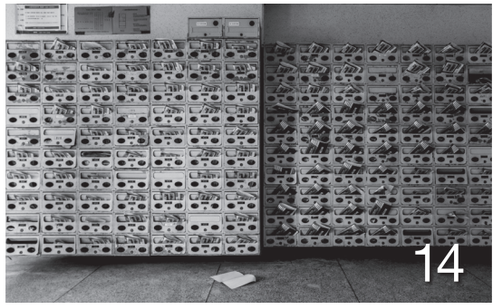
목차

겨레말

이천이십삼년 | 겨울호(통권 23호)









02 신년인사
남북, 해외 겨레의 참된 소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 민현식

04 겨레의 창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 문명사의 성숙한 미래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 고명철

08 집중 탐구
우리 겨레의 언어문화를 풍성하게 보여줄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을 준비하며 · 최준호

12 심상
시간에 붙이는 '이름', 시간이 들려주는 '말' · 이효영

겨레말 탐구생활

16 남녘말 북녘말
남북한 물고기 이름의 차이와 통일화 · 강언종

20 뜻풀이 깁고 더하기
땅벌과 따벌 · 이윤경

23 우리말 보물찾기
하염없이, 그 기나긴 생을… · 정지아

일러두기 | ① 본문에서 중복적으로 쓰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로,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한다.
② 본지에 게재된 외부 필자의 견해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민족어 보존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gyeoremal.or.kr)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겨레말 사람들
남조록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책임편찬원
《겨레말큰사전》 편찬원으로 일한다는 것

28 이 계절의 책
남북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학술지 · 오창윤

30 겨레말 소식

32 겨레말 낱말 풀이



2024년 새해 인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이 밝았다. 남녘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북녘에서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하듯 새해 아침에 나누는 인사말은 달라졌지만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 떡국을 먹는 남북의 설 명절 풍속은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용 가는 데 구름 간다"라는 속담처럼 새해에는 남과 북이 사이좋게 어울려 겨레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기를 기원해 본다. 새해 아침 눈 덮인 겨울산에 올라 소원을 빌면 다 이뤄질 것만 같다(본문 2~3쪽).

사진: www.imagetoday.co.kr

펴낸이 **민현식** 편집인 **모순영** 책임편집 **윤석정** 편집 **김미경, 홍서현, 이주랑** 펴낸날 **2023년 12월 31일**
펴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전화 **02)3275-0815** 전송 **02)3275-3715**
누리집 **http://www.gyeoremal.or.kr** 전자우편 **gyeoremal@gyeoremal.or.kr**
디자인 **해든디앤피 02)2266-6372** 인쇄 **(주)태광P&D**



남북, 해외 겨레의 참된 소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글 **민현식**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다양한 빛깔을 뽐내던 가을을 느껴 보나 싶더니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어느새 한 해가 저물며 용(龍)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소망하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평안과 건강과 번영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덕담을 남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북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하여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을 맞아 새해의 소원을 빌고 세배하며 덕담을 나누고 떡국을 먹는 등 설 명절의 풍속은 남북에 동질적 요소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설'은 '새해 첫날 새벽'을 뜻하는 단어라는 점이 신라의 고승(高僧) 원효(元曉)와 그의 아들로 유학(儒學)의 대가로 추앙받던 설총(薛聰)의 성명에 숨어 있습니다. '원효'(元曉, 으뜸 원, 새벽 효)는 1년 중에 으뜸가는 새벽 아침이란 뜻이니 '원단(元旦)'과 같은 뜻이고, '설총'의 '설'(薛, 성씨 설, 맑은 대쑥 설)은 한자어 '元曉'의 우리말 '설'을 적은 것이라 결국 같은 말의 표기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우리는 다양한 소원과 다짐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혹자는 '설'을 '낯설다'라는 뜻의 '설다'와 관련지어 '언행 따위를 삼가는 날'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불확실한 어원입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을 맞아 언행을 삼가는 '신일(愼日)'로 삼고 1년 365일 늘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인에게도 불변의 최고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사화(士禍)가 많던 시절 무명씨의 옛시조에서도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누리에 인터넷 사회망(SNS)의 홍수 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가짜 뉴스, 복제, 표절이 넘치고 설화(舌禍)도 잦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이 되었고 남의 나라 인터넷에 접속해 가짜 뉴스로 여론전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도구는 날로 발달하지만 불통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든 나라 관계든 말 한마디로 우의(友誼)가 깊어지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며, 세 치 혀 또는 열 손가락 글자 전송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며, 이웃 나라에 대한 애정과 혐오를 일으킵니다.

성품(性品) 품(品) 자에 입 구(口)가 세 개 모였듯, 말로 인간의 품성이 완성된다고 본다면 날마다의 언어 수양은 인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 해외 겨레의 진솔한 품성을 담은 언어 유산을 기록해 겨레의 참되고 온전한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회는 2023년에 북한어 이해에 초점을 둔 《미리 만나는 겨레말 작은사전》 편찬을 하였고, 새해부터는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집중할 것입니다. 남북과 해외 겨레의 한민족어 통합 정리를 목표로 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며 꿋꿋이 나아갈 것입니다.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용이 가면 구름이 가 비를 내리고 범이 가면 바람이 인다는 뜻에서 언제나 함께 어울리는 긴밀한 관계)라는 속담처럼 남북이 새해에는 용과 범처럼 사이좋게 어울려 겨레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에도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 문명사의 성숙한 미래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글 **고명철** 문학평론가



“살암시믄 살아진다”의 언어 철학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고향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직업을 얻어 가정을 꾸려 생활한 햇수가 고향에서의 삶보다 길다. 타지 생활을 하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되뇌곤 하던 말, 서울살이에서 표준어를 애써 일상화하기 위한 언어생활에 신경을 쓰다가도 힘들거나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치 주술에 걸린 양 퍼뜩 떠오르는 말이 있다. “살암시믄 살아진다”는 제주어가 그것인데, 이 말에 근접한 표준어로는 “살고 있으면 살게 된다”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토착어가 그렇듯이, 이것을 표준어로 번역한 순간 토착어 본래의 생명의 기운이 증발된 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간주하는 의미 전달로서만 기능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살암시믄 살아진다”의 표준어 표현 “살고 있으면 살게 된다”는 것은 토착어 표현이 지닌 사회 문화적 맥락의 의미를 갖기는커녕 밋밋한 사전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

하지만 누가 이런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어에 익숙한 언중에게 “살암시믄 살아진다”는 말은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복판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 난경을 잘 헤쳐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지와 용기를 북돋우는 말로 다가온다.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과 지정학적 조건 아래 험난한 삶을 살아온 제주인들의 언어 철학이 배어들어 있는 셈이다. 이렇듯이 토착어로서 제주어는 표준어가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삶과 언어의 생명력을 보증한다.

그런데 이런 토착어가 점차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7,000여 개의 언어들이 언어 생태계를 이루는데, 지구화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첨단 미디어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가 하면, 국민국가의 공식어와 표준어 사용이 팽배해지면서 토착어의 존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토착어의 보존과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련 전문 기관, 전문가의 노력의 중요성과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회가 유네스코와 협력 아래 2020년부터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국제학술포럼을 매해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모범적 사례 중 하나다. 유네스코가 2019년 ‘세계 토착어의 해’를 선포한 이후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세계 토착어 10년’을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토착어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토착어가 지닌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시함으로써 지구화의 미명 아래 점차 평면화 및 획일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문화 성찰적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토착어로 문학하기’의 성과

이런 측면에서 사업회가 주관하고 있는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학술포럼이 언어학뿐만 아니라 문학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언어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토착어가 지닌 언어학으로서 학술적 면모와 그 보존과 보급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생산적 검토를 하는 것은 토착어가 지구의 다양한 문화의 생명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문학적 차원에서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통해 토착어가 문학적 표현으로서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토착어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고 있



↑ 유튜브 겨레말TV '토착어로 문학하기' 아카이브



↑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제1세션 종합 질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좌장 고명철(문학평론가), 발표자 이대흠(시인), 이명애(시인), 창가미어 음찌지(시인, 잠비아)

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토착어는 앞서 나의 사소한 제주어 활용에서 소개했듯이 표준어로 번역됐을 때 의사소통을 위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 그 토착어 본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둔 언중의 최적화된 언어 표현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 토착어의 문학적 표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토착어의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토착어의 보존과 보급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적극화하고, 이를 위해 문학 안팎에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2021년 제2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부터 '토착어로 문학하기'로 아카이빙한 주제 발표와 작가의 작품 낭독 동영상들이 언어학과 문학의 성취는 물론 문화인류학적 성취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토착어로 문학하기'가 비중 있게 다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3개 대륙의 토착어들이 어떤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그것들이 지닌 미학으로서 문학적 풍요로움을 이루고 있는지를 아카이빙함으로써 그동안 전횡해 온 서구의 문학이 지닌 문화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구체성을 살펴본 것은 큰 소득이다. 가령, 아프리카의 토착어(스와힐리어, 기쿠유어, 요루바어), 아시아의 토착어(수누와르어, 오키나와어), 중남미와 라틴아메리카의 토착어(마야딴어, 마야 카치켈어, 케추아어) 등으로 창작된 시와 소설을 해당 토착어 사용자가 낭독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포럼 현장에서 참석자들과 공유한바 지구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토착어들이 각기 사회 문화적 맥락을 지닌 채 그 지역 및 대륙의 문학(문화)적 표현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중한 문학적 성취를 축적시키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서구 미학의 영향권 속에서 제국의 언어들(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을 중심으로 한 문학이 세계 문학의 정전이란 제도 아래 그 외의 언어들로 창작되는 문학을 변방의 문학으로 인식한 채 그리하여 이들 제국의 문학이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 온 것을 상기해 볼 때, 사업회의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같은 예의 아카이빙(Archiving)은 그동안 관성화된 제국 중심의 문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공부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성과임을 강조하고 싶다.

'구연적 상상력'이 지닌 문학적 상상력의 경이로움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것은 '토착어로 문학하기'에 참석한 문학인들이 보내준 동영상에서 낭독자들은 그들의 토착어를 구술로 낭독하는 것 외에 그 표현에 걸맞은 연행(演行)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해당 지역민과 문인은 그들의 토착어로 쓴 작품을 낭독하되, 낭독의 형식을 취할 뿐이지 노래와 춤을 자연스레 결합한 구술 연행의 문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토착어의 문학적 표현은 근대 문학의 문자성 중심의 표현이 주로 묵독에 비중을 둔 데 비해 낭독의 효과를 최대한 살린 구술성과 연행성이 결합한 구연적(口演的)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문학의 진실의 힘을 재현한다. 고백하건대, 토착어로서 문학은 묵독과 다른 낭독이 지닌 문학적 상상력의 경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서구 미학 중심의 근대 문학이 벼려온 묵독, 이것이 금과옥조였던 문자성 중심의 문학에 맹목이었던 내 자신을 죽비로 내리치곤 하였다.

그렇다. 문학 연구자로서 그리고 문학 비평가로서 그토록 경계해 온 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맹목'인데, 문학 교육과 제도권 속에서 문자성 중심주의 문학의 매트릭스에 갇혀있던 나 자신에 대한 자기비판을 가열하게 수행하도록 한 계기가 '토착어로 문학하기'의 프로그램이다.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십여 년 전 아프리카의 시인 코피 아니도호는 한국의 어느 국제 문학 교류 현장에서 다소 두텁지만 중량감이 느껴지지 않은 그만의 매혹적인 저음의 음색으로 아프리카 토착어로 쓴 구술시를 낭독하였다. 그의 구술시 낭독 현장에서, 분명, 나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아프리카 토착어의 시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흉내 내는 아프리카의 북소리와 원주민의 발장단과 반복되는 시구의 표현을 보고 듣는 내내 근처에서 북소리가 이명(耳鳴)처럼 들리고 그에 맞춰 누군가가 발장단을 하며 반복적 구음을 내는 미적 체험을 경험하였다. 그 순간, 문자성 중심의 번역에 익숙해 있던 내게 번역의 도움 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그의 아프리카 토착어 구술시는 전율을 자아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문학이 지닌 보편적 감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더욱이 그 토착어의 사회 문화적 맥락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구연적 상상력(구술성+연행성)은 문학의 경이로움으로 다가온 것이다. 추후 아프리카 문학 전문가로부터 들었는데 그 시적 전언은 서구 중심의 단수의 문명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토착어의 문학적 힘을 아프리카의 시인은 구술시로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사업회는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학술포럼에서 문명사적 차원의 담대한 기획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국제학술포럼이 지구 문명사의 성숙한 미래를 모색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



고명철

문학평론가. 1998년 《월간문학》 신인문학상에서 「변방에서 타오르는 민족문학의 불꽃–현기영의 소설세계」가 당선되면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는 『세계문학, 그 너머』, 『문학의 중력』, 『흔들리는 대지의 서사』, 『리얼리즘이 희망이다』, 『잠 못 이루는 리얼리스트』 등이 있다. 젊은평론가상, 고석규비평문학상, 성균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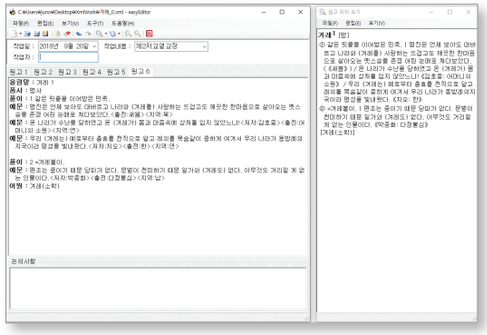
우리 겨레의 언어문화를 풍성하게 보여줄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을 준비하며

글 **최준호** 겨레말큰사전 편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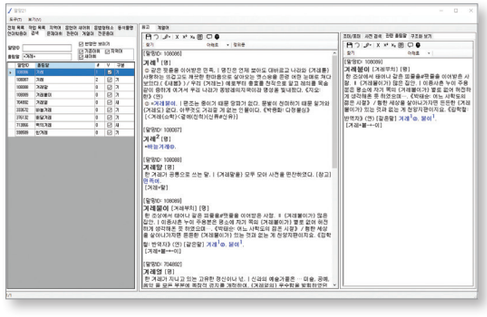


지금까지 사전을 만들어 온 과정

필자가 사업회에 입사한 2008년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초기였다. 그 당시는 남과 북이 공동회의를 통해 사전에 등재할 올림말을 선정하고, 사전의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사전의 구조를 정하고, 시험 집필을 통해 결정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기였다. 그때 처음 맡은 일은 남과 북이 사전 원고를 집필할 때 사용할 《겨레말큰사전》 전용 집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다. 시험 원고를 작성할 당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원고를 작성했고, 이를 교환할 때마다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전용 집필 프로그램이 이런 원고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출판 마지막 단계에서의 편집이 쉬워지리라고 기대했다. 이런 이유로 사전 원고를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 《겨레말큰사전》 전용 집필 프로그램



↑ 남측 원고 집필 프로그램 〈말망〉.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수정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시험 집필을 마치고 본격적인 집필과 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남과 북은 서로 작성한 초고를 검토하여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의 원고를 만들어 가는 일을 계속했다. 검토 단계의 원고와 합의 원고는 남측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관리를 계속했지만, 안타깝게도 북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원고 파일을 각자 작성한 뒤 교환해서 상대측의 원고를 서로 검토하고, 공동회의를 마치면 결과물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남측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수정하는 〈말망〉이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사전 편찬에 사용했다.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 계획 수립

사전 편찬 작업은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 가다 서기를 반복하게 되었다. 공동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마다 원고조차도 주고받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남측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진행했다. 공동회의가 다시 열리면 그동안 합의하지 못했던 원고들을 빠르게 검토하기 위해 초고 상태의 원고들은 꾸준하게 가다듬어 왔고, 검토 단계의 원고들은 뜻풀이와 예문 등이 어색하지 않은지 공들여 확인하고 수정했다.

그 중간 성과물로서 10권 분량의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했다. 결과물을 살펴보니, 최종 완성 단계는 아니더라도 웹을 통해 《겨레말큰사전》을 미리 보고 싶어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8년을 목표로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개통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비록 남과 북이 《겨레말큰사전》을 함께 완성한다는 계획은 변경되었지만, 조만간 《전자 겨레말큰사전》을 통해 이용자들을 만날 꿈을 꾸며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다.



↑ 제24차 공동회의(2015. 10. 12.~10. 19., 금강산)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특징

지금부터 앞으로 사용하게 될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작업해 온 중간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다.

사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방대한 작업물이다. 만일 원고를 작성한 사람마다 서로 차이를 보인다면 좋은 사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집필요강』이라는 사전의 설계도를 만들고 이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고 교열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 현장에서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지 않으면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전을 완성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남과 북은 공동회의를 통해 직접 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협의해 왔고, 그 성과물로 전체 30만여 개의 올림말 원고 중 12만 5천 개의 합의 원고를 확보하고 있다. 물론 아직 합의하지 않은 원고들이 많이 있지만, 합의한 원고들은 남북 교차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한 원고들이다.

> ‘지역어’ 역시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으로 뽑을 수 있다. 주로 남에 한정된 지역어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국어사전과는 달리, 《전자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북을 비롯하여 중국 등 해외의 지역어들도 수록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언어문화를 풍성하게 보여 준다.



↑ 북측에서 그린 '능소화(북측 표기 '릉소화')'의 세밀화

풍부한 용례와 다채로운 지역어

종이 사전 출판과 달리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전 역시 그렇기 때문에, 큰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삽화, 용례, 지역어 등에서 우리 사전만의 많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

먼저 삽화의 경우 사진, 일러스트, 세밀화 중에서 해당 어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밀화 제작에 남북, 해외동포 작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사전 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남북이 함께 만든 사전이라는 의미도 부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풍부한 용례를 제공한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전은 문학 작품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 실제로 사용된 문장을 용례로 인용하고 있다. 사전을 만들 때는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검색할 수 있도록 대량의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놓고 수시로 검색하여 사전 편찬에 이용하는데, 이것을 ‘말뭉치’ 또는 ‘코퍼스’라고 한다.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남에서 출판된 자료뿐만 아니라, 북이나 연변에서 출판된 자료 역시 대규모로 말뭉치에 입력하여 사용하고 있다. 덕분에 사전을 통해 실제 북녘 동포들의 말을 앞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한 용례를 볼 수 있다.

‘지역어’ 역시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으로 뽑을 수 있다. 주로 남에 한정된 지역어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국어사전과는 달리, 《전자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북을 비롯하여 중국 등 해외의 지역어들도 수록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언어문화를 풍성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어 올림말과 지역어 정보를 독자들에게 다채롭게 제공하기 위해 지금도 최종 점검에 힘쓰고 있다.



↑ 《전자 겨레말큰사전》 예시 화면

남과 북의 언어 현실을 반영한 사전

사전을 만들면서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어떤 단어를 보면서는 ‘요즘에도 이런 말을 쓰나?’ 할 때도 있고, 어떤 단어를 보고는 ‘이 단어에 이런 의미도 있나?’ 할 때도 있다. 남과 북이 갈라진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르게 변화해 가는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서로에게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를테면 ‘운행표’라는 말은 처음에는 남과 북이 함께 쓰다가 이제 북에서는 ‘다님표’라는 말로 다듬어서 사용하고 있다. 남과 북의 사전 편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성한 뜻풀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나마 북녘 사람들의 언어 현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동회의 재개를 바라며

《전자 겨레말큰사전》은 사실 지금 예로 든 것보다 더 많은 특징으로 지면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뿐만 아니라 사전을 함께 만들고 있는 사업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각의 이야기를 품고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만큼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종이로 출판할 것을 고려하여 작성한 원고들이 웹사전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개되었을 때 어색한 점은 없을지, 혹시라도 30만여 개의 올림말 원고 중 잘못된 원고는 없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수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을 완료하면 《전자 겨레말큰사전》 검색 사이트를 구축하여 테스트하고 최종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전자 겨레말큰사전》 작업 이외에도 언젠가 공동회의가 재개되어 그동안 합의하지 못한 원고들을 다시 작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비록 연락은 닿지 않지만, 북측 편찬위원 선생님들도 《겨레말큰사전》 완성을 위해 함께 모여 예전처럼 작업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리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한 땀 한 땀 사전 편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



최준호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국어정보학협동과정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연세한국어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2008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1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시간에 붙이는 '이름', 시간이 들려주는 '말'

글 · 사진 **이효영** 사진가

사진가로 일한 지도 제법 되었지만, 가족이나 친척들의 사진을 찍은 적이 거의 없다. 핸드폰 카메라 사용에 모두가 익숙해진 지금, 사진가의 존재는 그다지 특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들 알아서 찍고 찍힌다.

그럼에도 가족들이 내게 딱 한 번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의 상수연(上壽宴) 때다. 무려 100세를 축하하는 자리다 보니, '기념 촬영'이라는 나름의 격식도 필요했던 것이다. 그 뜻을 잘 알기에 나도 큰 카메라를 챙겨 와 부러 바쁘게 뛰며 셔터를 눌렀다. 할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사진가 역할을 해 보였다.

할머니는 그 후 1년 남짓 뒤에 돌아가셨다. 당시 나는 솔직히 슬프기보다 그저 아득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고령이었던 만큼, 내 40여 년 인생 동안 늘 뵈어 왔던 할머니시다. 어제처럼 내일도,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물론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 따윈 없다. 나는 그나마 할머니의 100세 사진이 나마 찍어 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상수연'이라는 이름의 사진 몇 장이 할머니 대신 남아 있다.



↑ 나의 신혼을 보냈던 오래된 임대아파트의 모습. 정형화된 아파트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벽이나 창문들에서 시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나는 특별한 주제나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찍지는 않는다. 살면서 마주한 주변 모습을 담을 뿐이다. 매일 지나쳤던 아파트 우편함도 어느 날은 낯선 언어가 되어 말을 걸어온다.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 있지만 시간을 쉬이 실감하지 못한다. 시간이란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다. 무기력하고 무의미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을 애써 설명하려 한다. 반복되는 하루라도 굳이 '생일'이니 '상수연'이니, 온갖 기념일을 만들어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욕망은 사진의 습성과 매우 흡사하다. 사진을 찍는 것은 시간을 기념하는 것, 즉 시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무형의 시간을 프레임에 가두어 의미화하는 것이 바로 사진이다.

결혼 직후부터 수년간 나는 성남의 낡은 임대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냈다. 그 시절 찍은 사진을 모아 〈허니문〉이라는 이름의 전시를 열었다. 그때 관람객 중 한 분이 "사진에서 시간이 읽힌다."라는 평을 했다.



사실은 그만큼 사진 속 내 세간살이들이 오래되고 낡아 보인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말에는 분명 사진의 핵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특별한 주제나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찍지는 않는다. 전단지가 담긴 우편함, 널브러진 담배꽁초





와 낡은 의자, 버려진 장난감 자동차와 그 위에 쌓인 눈, 가로등 빛을 받고 있는 겨울나무 등 살면서 마주한 주변 모습을 담을 뿐이다. 당연히 이것들은 어떤 주제도 내용도 없는, 그냥 사물들이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것들이 '허니문'이라는 제목만으로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그때 나의 과거는 어떤 특별한 시간으로 승화된다. 앞서 말한 관객도 그렇고, 〈허니문〉 전시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된 시간의 정서를 느꼈을 거라 나는 생각한다. 나의 작품이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사진이란 매체가 원래 그렇다. 사진은 시간을 '언어'로 되돌린다.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시간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가 된다. 시간을 실감하는 것만으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된다. 시간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인간의 환상이지만, 그 환상이 사진의 가장 큰 동력이자 가치다.

할머니의 상수연 사진들은 현재는 액자에 담겨 큰댁 곳곳에 장식되어 있다. 가끔 큰댁에 들를 때마다 나는 그것들을 들여다본다. 익숙한 모습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거나, 미처 몰랐던 작은 표정들을 새삼 찾아낸다. 그런 순간에도 시간은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흘러간다. 할머니가 그랬듯, 사진 속 사람들도 하나둘 시간 밖으로 사라질 것이다. 나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대신 나는 오늘도 카메라를 든다. 이미 지나갔거나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신중하게 이름을 붙여본다. 시간에 말을 건다. 시간이 대답한다. 우리는 특별하다. 특별해진다.
찍고, 찍히면서. 쓰고, 읽으면서.



이효영
사진가. 시인.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취재기자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배웠다. 2021년 개인전 〈허니문〉을 열었고, 성남문화재단 기획전시 〈성남의 얼굴전〉(2019)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2년 시집 『당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를 내며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남북한 물고기 이름의 차이와 통일화

글 **강언종** 전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

남과 북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70년의 긴 기간을 왕래가 없이 지냈다. 북한의 방언이 남한과 다르기도 하지만 가끔 방송에서 듣는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일부 어휘들은 아예 알 수가 없다. 일상 어휘와 다른 전문 용어인 물고기 이름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다.

민물고기는 육지를 건너갈 수 없으므로 오직 자기가 태어난 하천이나 강에서만 지낸다. 서로 분리되어 만나지 않는 수계에는 그곳에만 나는 종류만 있을 것 같지만 분리된 다른 수계에서 사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민물고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같은 종류를 일컫는 각 지역의 이름은 일상 어휘와 마찬가지로 서로 비슷하기도 하지만, 사뭇 다르기도 하다. 종류는 다른데 생김새가 서로 비슷한 물고기들은 서식하는 지역이 다른데도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있다. 해역 사이를 비교적 자유롭게 오가는 바닷물고기의 종류와 이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물고기 이름의 표준명

물고기 종류의 이름은 선사 시대에도 있었겠지만, 고려 시대에야 비로소 한자를 빌려 문자로 기록하였고,[1]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자어 이름을 우리글로 표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사는 물고기 종류가 근대 분류 체계에 따라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848년이다.[2] 그러나 우리말 물고기 이름이 과학기록에 처음 나타난 것은 이보다 거의 100여 년이 지난 1934년으로 볼 수 있다. 삼위삼(森爲三)·내전혜태랑(內田惠太郎)[3]은 우리나라 물고기 종류 522종을 기록하였다. 그중에 평북 지방의 우리말 물고기 이름 '열목어'와 '우레기'가 각각 영문자 'Yolmegi'와 'Uregi'로 표기되었다.

지역별로 다른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의 표준명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34년으로, 정문기 박사는 물고기 159종의 '대표명'을 발표하였다.[4] 1977년까지 정 박사가 수집한 방언 목록은 2,018개로 늘었고, 같은 종의 방언 중 대표하는 이름을 선정하고 이름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 872종의 물고기 이름으로 표준화하였다.[5] 이 목록은 오늘날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물고기 표준명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역별 기초 연구를 거쳐 김리태와 길재균[6]이 우리나라 어종의 수를 866종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표준명을 제시하였다.[7]

전문 용어는 일상 어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특수한 단어이다. 생물의 명칭은 전문 용어의 하나이므로 규정만 생각하면 단어의 의미나 형태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이름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전문 용어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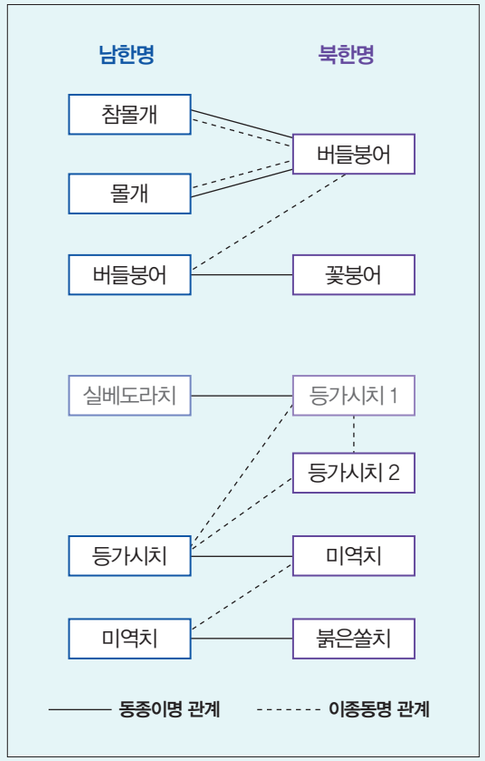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물의 표준명은 '국명'이라 하며, 과학 분야에서는 '학명'을 사용한다. 이들 명칭은 모두 '종류'와 '속류'를 의미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종류는 하나의 속류 개념에 포함되는 생물들 사이에서 서로 구분되는 특징들을 공유하는 종이다. 속류는 일정 기준에서 몇몇 종류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지식이 발전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으로 정의되거나 혹은 이전의 다른 것에 병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표기 형식이 엄격한 학명은 형태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국명은 형태가 바뀌지 않고 이전과 다른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8]

동종이명과 이종동명의 관계

남북한 물고기 이름의 차이는 종의 학명이 정리된 후 학명에 대응하는 남북한 표준명이 서로 다른 '동

1) 한미경, 「조선시대 물고기관계문헌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집, 2009, 237–269쪽.
2) Richardson J, 1848, Fishes, Pp. 1–28, Pls. 1–10. In: A. Adams (ed.), The zoology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under the command of Captain Sir Edward Belcher, during the years 1843–1846. Reeve & Benham, London.
3) 森爲三, 内田惠太郎, 「補訂朝鮮産魚類目錄」, 朝鮮博物學雜誌 19, 1934, 12–33쪽.
4) 정문기, 「조선어명보」, 조선수산회, 1934, 45쪽.
5) 정문기, 「韓國魚圖譜(1판)」, 一志社, 1977, 727쪽.
6) 김리태, 길재균, 「조선동물지(어류편 1)」, 과학기술출판사, 2006, 258쪽. 김리태, 길재균, 「조선동물지(어류편 2)」, 과학기술출판사, 2007, 287쪽. 김리태, 길재균, 「조선동물지(어류편 3)」, 과학기술출판사, 2008, 293쪽.
7) 우리나라 물고기 종류(이름)의 수는 정문기(1977) 이후 새로운 종들이 많이 발견되어 2011년에는 1,159종이 기록되었고(김익수, 최윤, 이충렬, 이용주, 김병직, 김지현, 「원색한국어류대도감(2판)」, 교학사, 2011, 615쪽.) 지금도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물고기에 대한 개정 내용이 불확실하다.
8) 단일명칭 형태의 국명은 유사한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복합명칭 형태의 국명으로 확장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단일명칭 '붕어'에 '버들잎처럼 얇은'의 의미가 덧붙여져 '버들붕어'가, '겉모양이 화려한'의 의미가 덧붙여져 '각시붕어'가 지어지는 식이다. 이들 복합명칭어 국명에서 오른쪽 요소는 넓은 의미의 속류를 지정해 주는 '상위구별표지'이며, 왼쪽의 요소는 속류 중 특정한 의미의 생물을 지칭해 주는 '하위구별표지'이다(여찬영, 「우리말 물고기 명칭어 연구」,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 9집, 1994, 1–26쪽.). '학명'은 복합명칭어 형태의 구조로만 존재하는데, 국제공통어로 '라틴어'를 이용하며, 반드시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국명 '붕어'의 학명은 "*Carassius auratus* (Linnaeus 1758)"이며, 마지막 부분은 부가적으로 기록된 명명자와 명명 연도이다. 학명의 구조는 우리말과 달리 왼쪽 요소가 속류, 오른쪽 요소가 종류이다. 이 학명에서 명명자와 연도가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속류 개념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종은 최초 *Cyprinus*에 해당하였으나 나중에 *Carassius*라는 속류 개념이 생기면서 옮겨졌다. 그러나 국명의 경우는 내포하는 사전적 의미만 달라졌을 뿐 형태는 그대로이다.

종이명'을 의미한다. 남북한 물고기 이름의 통일화는 방언의 표준명 선정 기준 통일화 과정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물의 종 구분에 대한 양측의 분류학적 입장과 연구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달리 구분될 각 종에 해당하는 방언들의 표준화 기준이 설득력 있게 설정되어야 하므로 그리 단순하지 않다.



↑ 남북한 민물고기(위)와 바닷물고기(아래) 이름의 관계를 비교한 예이다. 흐린 글씨는 미확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을 보면, 남한에는 '참몰개'와 '몰개'의 2종이 있지만, 북한은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버들붕어' 1종으로 보았다. 따라서 남한의 2종은 북한의 1종에 대한 명칭상 동종이명으로,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버들붕어'가 각 종의 이종동명이기도 하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혀 다른 물고기를 '버들붕어'로 부르므로 위의 '버들붕어'와 이종동명의 관계가 겹으로 얽힌다. 북한은 또 남한의 '버들붕어'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꽃붕어'라 부르므로 다시 한번 동종이명과 이종동명의 관계를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종들이 서로 동종이명이나 이종동명으로 얽혀있는 상태에서는 속류 개념의 통일화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이름을 표준화하는 게 쉽지 않다. 바닷물고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남북한 물고기 이름의 특징과 통일화 방안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물고기 이름이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것은 137종뿐이어서 북한 물고기 이름 중 약 16%만이 바로 이해될 수 있다.[9] 상호 소통을 위해서는 남북한 물고기 이름을 해설하는 사전이 필요할 정도이다. 다만, 남북한의 문법 차이에 따라 표기 방법이나 어미만 달라진 것들이 있어 쉽게 남한의 물고기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 '검붕장어'와 '검은붕장어', '모래무지'와 '모래무치', '괭이상어'와 '고양이상어', '둑중개'와 '뚝중개' 등이 그렇다.

9) 철자가 완전히 같을 때를 의미하지만, 북한의 여러 학자들이 달리 정한 표준명에 같은 철자의 이름이 있는 경우와 학술적 동종이명의 종에 같은 철자의 국명이 있을 경우도 포함시켰다. 외국인이 어명을 검색할 경우 철자가 다르면 다른 이름으로 파악할 것이므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며, 남북한 철자법의 차이와 의미상 같은 단어 등을 같은 이름으로 처리할 경우 결국 방언 중 표준어를 선정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북한의 표준명 중에는 새로운 종의 이름을 지을 때 방언에서 선정하기보다는 기존 명칭을 속류 요소로 하여 복합명칭어로 확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한은 칠성장어속 어종 이름을 '칠성장어', '다묵장어', '칠성말배꼽' 등으로 방언 중 표준명을 선정한 반면, 북한은 각각 '칠성장어', '모래칠성장어', '보천칠성장어'로 하여 속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북한의 물고기 이름은 특히 색깔이 종 구분의 특징일 때 한자어 음독 대신 우리말로 변환하거나 어감의 차이를 반영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황-'과 '노랑-', '백-'과 '흰-' 등의 차이가 대표적이다. 이전에 없었던 미기록 종에 새롭게 이름을 붙일 경우에는 학명의 뜻을 번역하여 반영한 점도 두드러졌다. *Niphon*속(屬)은 '왜농어속', *Sacura*속은 '벚농어속', '꼬마민어 *Sciena goma*'는 종소명으로 사용된 일본어 goma를 해석하여 '깨알무늬민어', *Takifugu vermicularis*는 '벌레복'으로 번역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북한의 표준명 중에는 새로운 종의 이름을 지을 때 방언에서 선정하기보다는 기존 명칭을 속류 요소로 하여 복합명칭어로 확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한은 칠성장어속 어종 이름을 '칠성장어', '다묵장어', '칠성말배꼽' 등으로 방언 중 표준명을 선정한 반면, 북한은 각각 '칠성장어', '모래칠성장어', '보천칠성장어'로 하여 속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10) 박종영, 강언종, 『남북한 어명사전』,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456쪽.

우리말 방언 중에서 선정된 물고기 표준명에는 남북한에서 각기 해당 물고기가 사는 지역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표준명칭의 통일화 작업에는 이러한 특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1990년대부터 남한에서는 기존에 미기록 종이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동해 북부 바다에 출현하는 물고기 종류 중에는 남한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새롭게 발견한 종으로 기록하였지만, 북한에서는 그 물고기가 이미 기록된 경우가 많다.[10] 이러한 경우에는 분류학적 '선취권'의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언종

전북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물고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서로는 『원색한국어류도감』, 『남북한 어명사전』 등이 있다. 현재 전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이다.

땅벌과 따벌

글 **이윤경**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해마다 추석 때가 되면 벌초나 성묘를 하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말벌이나 땅벌의 집은 덤불 속이나 땅속에 있으므로 눈에 띄지 않아 건드리기도 쉽고, 벌집 근처를 지나갈 때 진동이 생기는데 이를 감지한 벌들이 흥분하여 공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벌이나 땅벌이라고 부르는 곤충은 분류학에서 벌목(-目)의 말벌과(--科)에 속하는 무리를 이르는 말이다. 벌목은 나비목, 파리목 등과 함께 곤충의 주요 목(目)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미'도 벌목에 속한다. '말-'은 '큰'의 뜻을 더하는 말이며 '말벌'은 '큰 벌'이라는 의미이다. 말벌과 중에서 가장 작은 '땅벌'은 몸길이가 암컷이 1.6cm, 일벌이 1.2cm 정도이고 가장 큰 '장수말벌(將帥--)'은 몸길이가 5cm에 이른다.



↑ 땅벌



↑ 땅벌 집

'땅벌'은 말 그대로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종류인데 덩치가 꿀벌보다 약간 큰 정도로 다른 말벌과 벌에 비하여 매우 작다. 벌은 무리를 이루며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이어서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수백 마리의 벌에게 집단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1]에서는 '따-'를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땅'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 등재하고 있다. 아래는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접사 '따-'의 뜻풀이와 그 예이다.

> **따-** [앞] (일부 명사적인 말뿌리에 붙어) 《땅》의 뜻. ‖ ~벌. ~꽃.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일부 동식물명에 접두사 '따-'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인 '따꽃, 따벌, 따쥐' 등이 실려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땅'이라는 접사가 따로 실려 있지 않고 북측의 '따꽃, 따벌, 따쥐' 등에 대응하는 단어로 '따꽃[2], 땅벌, 땃쥐'가 실려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우리말큰사전》 등에 실려 있는 '땅벌'과 '따벌'의 뜻풀이는 각각 아래와 같다.

사전	올림말 (표제어)	뜻풀이
표준 국어대사전	땅벌	①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 ≒토봉(土蜂).
		② 말벌과의 벌. (중략) 검은색이고 등 쪽에 각각 누런색을 띤 백색의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있다. 애벌레는 식용하며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땅말벌, 바더리. *(vespula flaviceps lewisii)*
우리말샘	따벌	'땅벌'의 북한어.

1)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는 2017년에 발행된 사전을 중심으로 하였다.
2) '따꽃'은 '채송화(菜松花)'의 다른 이름이다.

사전	올림말 (표제어)	뜻풀이
조선말 대사전	땅벌	=따벌.
	따벌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의 한가지. (중략) 여러종의 풍덩이새끼벌레에 붙어산다. 풍덩이새끼벌레를 땅속에 만든 특수한 방에 끌어들여 거기에다 알을 쓴다. 알에서 까나온 따벌의 새끼벌레는 풍덩이새끼벌레를 영양물로 취하면서 자란다.(=)토벌[1] ②. 땅벌.
금성 국어대사전	땅벌	①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의 총칭. ② =먹조롱박벌.
우리말 큰사전	땅벌	①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을 통틀어 일컬음. 〈한〉토봉01. ② =땅말벌. ③ =검정조롱박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땅벌	①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말벌과에 속한 벌. (중략) 검은색이고 등 쪽에 각각 누런색을 띤 백색의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있다. 애벌레는 식용하며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학명은 *Vespula flaviceps lewisii*이다.
	따벌	'땅벌'의 북한어.

남북의 사전을 보면 '땅벌'이나 '따벌'의 기본적인 의미는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곤충 분류학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남측 사전의 '땅벌'과 북측 사전의 '따벌'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조선말대사전》 '따벌'의 뜻풀이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배벌과(--科)'에 해당한다. 남측에서는 벌목(-目) 가운데 '말벌과'(땅벌)와 '배벌과'가 나뉘어 분류되고 있다. 배벌과 중에서 '금테줄배벌(金----)'[4]은 꿀벌보다 몸이 길고 머리와 가슴에 비해 배가 길며 배마디에 노란색의 줄무늬가 나 있다. 이 벌은 땅속에서 생활하는 풍뎅이류 애벌레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남측의 '배벌'은 북측 사전의 '따벌' 뜻풀이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땅벌'과 '따벌'은 일반적으로 형태가 다르나 의미가 같은 말로 알려져 있지만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측 사전에 실린 벌(배벌)에 대응하는 북측의 벌(따벌)을 분류학상 학명을 기준으로 다시 비교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배벌[5]	긴배따벌
애배벌	애기긴따벌
황띠배벌(黃---)	누런띠따벌[6]

남북의 일반 언중은 곤충강 벌목의 벌 종류 중에서 땅에서 사는 벌을 배벌과 말벌, 땅벌, 따벌 등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울러 남에서는 '땅벌'로, 북에서는 '땅벌'이나 '따벌'로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용례를 보면 땅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3) 《조선대백과사전》의 '따벌' 학명은 'Scoliidae'이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배벌(과)' 학명과 같은 것이다.
4) 국립공원공단 생물종 정보 참조(https://terms.naver.com/list.naver?categoryId=59604)
5)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배벌과'로 등재되어 있다. '배벌과'의 '배벌'은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와 두산백과 분류를 참조하였다.
6)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는 북측 사전을 토대로 남측의 동물명이 풀이되어 있다. 《우리말샘》에 실린 '누런띠따벌'은 남측의 분류학상 종류인 '황띠배벌(黃---)'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벌들을 '땅벌(따벌)'이라고 통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과 북의 용례에서도 모두 잘 드러나 있는데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땅벌'의 남측 용례

- 시골에 산 사람치고 이 **땅벌에게** 안 당해 본 사람은 없다. … 이 벌은 사람이 벌집을 건드린 후 움직이고 뛰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간다.《김용택: 섬진강 이야기》
- 아버지는 모자라는 뽕을 따러 아들 친구 건호네로 갔다. 뽕을 따다가 **땅벌에** 쏘였다고 했다.《공선옥: 나비》
- **땅벌은** 벌 가운데서 독이 무섭기로 소문난 벌이다.《송기숙: 당제》

◉ '땅벌'과 '따벌'의 북측 용례

■ **땅벌**

- 장덕산에 갔다가 **땅벌한테** 쏘인 철수는 눈두덩이 퉁퉁 부어올라 며칠 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아버지의 마치》
- 상봉의 어진 심장에 **땅벌의** 침과 같은 그의 질문이 가차없이 연방 들여박혔다.《밑거름》

■ **따벌**

- 성철은 옷을 활활 벗어던지고 런닝그바람으로 일을 하고있었다. 땀이 목살이며 잔등으로 줄줄 흘러내리는것도 솔쐐기며 **따벌이** 악스레 쏘는것도 아랑곳 않고 수풀속에 몸을 푹 잠그고 낫을 와짝 후려나간다.《행복의 방아》
- **따벌은** 립춘이의 뒤에서 끌려오는 염소한테로 날아가 이마빡을 콕 쏘아주었습니다.《꽃정을 찾은 아이》

지금까지 사전과 용례 등에서 '땅벌'과 '따벌'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사전 편찬자는 앞으로 남북의 말을 아우르는 사전을 편찬할 때 이와 같은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남북이 다시 교류하는 때가 와 남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남과 북이 언어생활에서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함으로써 서로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땅벌'과 '따벌'의 풀이를 대략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땅벌
①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 [같은말] 토봉(土蜂).
② 몸은 검은색이고 등 쪽에 각각 누런색을 띤 흰색의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있는 벌. 수컷은 암컷보다 털이 더 빽빽하며 더듬이가 길다. 땅속에서 사는데 애벌레는 먹을 수 있다. [같은말] 바더리. 땅말벌.
③ =따벌.

따벌
꽃가루와 꿀을 먹고 땅속의 풍뎅이 애벌레에 알을 낳는 벌. 몸의 색깔은 주로 검은데 약간 재색이 돌며 날개는 어두운 밤색이다. 머리가슴보다 배가 길다. 땅속에 방을 만든 뒤 풍뎅이류의 애벌레를 넣고 흙을 덮는데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풍뎅이 애벌레를 먹고 자란다. [같은말] 땅벌③.



이윤경
성심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전편찬실 편찬원을 역임했다. 현재 사업회 편찬3부 책임편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하염없이, 그 기나긴 생을…

글 **정지아** 소설가



1989년이었다. 그 전해 이태 선생의 『남부군』이 출판되었고, 빨치산이었던 내 부모는 자신들의 젊은 날을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되었다. 『남부군』이 유약한 자유주의자의 시점이라 비판하기는 했지만, 이후 모든 빨치산 관련 소설이나 다큐가 『남부군』으로 인해 가능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주의적 시점도 다 쓸모가 있다.

이태 선생은 빨치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만 한 게 아니다. 전직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근 사십 년 가까이 소식조차 모르던 남부군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서로 연결해 주기도 했다. 이태 선생은 엄마를 찾아와 물었다(이태 선생은 엄마를 또렷이 기억했고, 엄마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서로의 지위 차이였을 것이다. 이태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내 엄마는 당신으로서는 하늘 같은 존재였단다).

김태규, 하종구, 유화열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이름 셋만 대 봐요."

엄마는 망설임 없이 단박에 대답했다.

"김태규. 하종구. 유화열."

모두 남부군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다. 김태규 선생과 하종구 선생의 소재는 이태 선생이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양반이 한걸음에 구례까지 달려왔다. 두 양반은 그 뒤로도 뜨문뜨문 엄마를 찾아왔다. 하종구 선생은 달변이었지만 김태규 선생은 말수가 적었다. 나도 몇 번 뵈었는데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다. 김태규 선생은 매번 돈 봉투를 어딘가 숨겨놓았다. 직접 주면 엄마 자존심에 받을 것 같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불 더미 속에서 돈 봉투를 찾은 적도 있고, 신문 밑에서 찾은 적도 있다. 봉투에는 어떤 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하면 딱 한 마디만 했다.

"나는 먹고살 만하오."

그러니 부담 없이 받으라는 모양이었다. 말없이 오고 가는 깊은 마음을, 나는 아마 김태규 선생으로부터 처음 배웠지 싶다.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웠으면서도 그들은 근 사십 년을 만나지 못했다. 고향을 알고 있으니 찾으려 하면 찾지 못했을 리 없다. 아마 연락을 했다가 서로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솟구치는 그리움을 애써 가라앉힌 게 아니었을까?

유화열 선생을 찾는 데는 이태 선생도 근 일 년 가까이 걸렸다. 우리 식구는 이태 선생의 차를 얻어 타고 한걸음에 남해로 달려갔다. 우리 집과 다를 바 없는 허름한 농가에서 유화열 선생은 살고 있었다. 엄마를 보고 눈만 껌벅껌벅하던 유화열 선생은 눈앞의 늙은이가 젊어 헤어진 그 누이임을 알아보고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누님…"

유화열 선생은 소리 없이 울었다. 이내 소박한 술상이 차려졌고, 모두 방에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누구도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가 눈을 꿈벅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이태 선생이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남부군 둘이서 오붓하게 회포를 풀라는 의미인 모양이었다. 눈치가 보였지만 나는 일어서지 않았다. 이런 기막힌 자리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그때부터 나는 천생 소설가였던가 보다.

하염없이 살았소

유화열 선생은 이현상의 부관이었다. 둘이 낙오되었고, 이현상은 유화열 선생에게 고향인 남해에 가 먹을 것을 구해 오라 일렀다. 이현상은 간부에게만 주어지는 비상식량 한 줌을 떠나는 유화열 선생에게 건넸다. 싫다고 했지만 이현상은 기어이 선생의 손에 쌀 한 줌을 쥐여주었다. 선생이 세상을 향해 몇 발 내디뎠을 때 이현상이 나지막이 불렀다.

"유 동지. 살길이 있거든 애써 피하지는 마시오."

그때 유화열 선생은 고작 십 대 후반이었다. 십 대의 소년에게도 존댓말을 썼던 이현상의 마지막 말이 유화열 선생의 마음에 사무치게 남았다.

고향 집에 들른 선생은 이내 어머니의 전갈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에게 에워싸였다. 친척들은 대부분 경찰이었고, 선생을 경찰로 만들어 목숨을 살렸다. 어머니의 눈물을, 어쩌면 살고 싶은 욕망을, 유화열 선생은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누님. 하염없이 살았소."

선생은 엄마와 함께한 내내 물처럼 소주를 들이켰다. 내게는 그의 눈물이 소주처럼 보였다. 산다는 일은 참으로 어렵구나, 두 사람 곁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뭐가 문제겠는가. 살았으니 됐다, 그냥저냥 살았어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냥저냥 살지 못했다. 하염없이 살았다. 유화열 선생의 '하염없이 살았'다는 말이 그날, 내 마음에 얹혔다. 스물셋, 젊은 마음에 맺혔던 하염없다는 말은 2022년, 그러니까 무려 34년 만에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등장했다.

속엣말 감추는 법 없는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쏘아붙였더니 어느 날 박 선생이 느닷없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상욱아. 너 하염없다는 말이 먼 말인중 아냐?"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고 박 선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먹은 소주가 죄 눈물이 되어 나오는 것 같았다고, 생전 처음 취했던 아버지가 비틀비틀, 내 몸에 기대 걸으며 해준 말이다. 고2 겨울이었다. 자기 손으로 형제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사는 이에게 하염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열일곱 여린 감수성에 새겨진 무늬는 세월 속에 더욱 또렷해져 나는 간혹 하염없다는 말을 떠올리곤 했다. 아직도 나는 박 선생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하염없이 남은 인생을 견디고 있을, 만난 적 없는 아버지 친구의 하염없는 인생이 불쑥불쑥 내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곤 했다.[1]

이데올로기와 인간, 그 사이에 끼어 엉거주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러나 무엇 하나 떨쳐버릴 수도 없어 속절없이 견뎌온 삶의 실감을 나는 '하염없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다. 소설 속 상황과 처음 그 말을 내게 들려준 유화열 선생의 상황은 다르지만 진실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이래서 내 소설을 소설이 아니라 다큐로 읽는지도 모르겠다).

'하염없이'라는 부사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 1. 시름에 싸여 멍하니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생각이 없이.
> 2. 어떤 행동이나 심리 상태 따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되는 상태로.

나의 삶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되어 멍하니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생각도 없이 견뎌온 유화열 선생의 삶에 이보다 더 적절한 어휘가 있을 성싶지 않다. 문학도 어학도 알지 못하는 선생이 어찌 사전의 1과 2의 의미를 다 합쳐 자신의 삶을 '하염없이'라는 한 단어로 적확하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나는 삶의 한고비 한고비, 최선을 다해 넘어온 누군가의 삶을 소설보다 더 높이 친다. 유화열 선생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전 생의 무게를 실어 토해낸 어떤 말들이 있어, 나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쓸 수 있었다.

1)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2022, 49~50쪽.

소설가는 위대한 창조자들의 삶을 기웃거린다

나는 13년째 구례에 살고 있다. 구례에는 노인네들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다. 아마 여성 노인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이상도 하지. 시골 할배들의 말보다 할매들의 말이 훨씬 더 감칠맛 나고 풍요롭다(아마 할배들보다 할매들이 더 고난의 세월을 살아서일 거라 짐작한다). 시골을 죽도록 싫어했던 내가 언젠가부터 노인네들만 지나가면 온몸의 안테나를 곤두세운다. 거기, 내 소설의 영감이 될 살아 있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례 내려와 깨달았다. 소설가는 위대한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세상에 떠도는 살아 있는 말, 그러니까 한 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을 채집하고, 그 말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창조자들은 저 거리에, 논과 밭에, 장터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어딘가에, 있다. 무릇 쓰는 자라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위대한 창조자들의 삶을 기웃거릴 일이다.



정지아

소설가.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소설집 『행복』, 『봄빛』, 『숲의 대화』, 『자본주의의 적』,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등을 펴냈다.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만해문학상, 5·18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남초록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책임편찬원

《겨레말큰사전》 편찬원으로 일한다는 것

2015년 12월, 제25차 공동회의 이후 사업회는 제26차 공동회의에 가져갈 회의 원고를 정비하는 한편으로 북측과 공동회의 재개 시 사전 편찬 작업을 속행하기 위한 북측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아래 '가제본')을 제작했다. 또 사전 편찬에 활용하기 위해 '겨레말 말뭉치'를 구축했고 대중에게 남북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언어' 연작물과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아래 '겨레말작은사전')도 출판했다. 2006년 사업회에 입사한 이후 총 아홉 차례 공동회의에서 북측 편찬원들과 만나 사전에 수록될 원고를 합의했고, 사업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편찬 사업에서 편찬 실무를 맡아 일하고 있는 남초록 책임편찬원을 만나봤다.



↑ 제25차 공동회의(2015. 12. 6.~12. 13., 중국 대련)

독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6년 3월에 입사해 올해로 만 17년째 편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 문예창작학과에서 소설을 전공했는데 소설어사전, 문학용어사전 등 다양한 사전들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사전 편찬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제16차 공동회의부터 중국 다롄에서의 제25차 회의까지 총 아홉 차례 공동회의에 참여했고, 올림말 선정을 시작으로 원고 집필 및 교열·교정, 종합집필요강 작성 및 관리, 전문어 영역 정비, 최신 용례 보완 등의 일을 맡아 왔습니다. 지금은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지침 작성, 지역어 정비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 편찬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사전 편찬실에서는 편찬 지침에 따라 올림말을 선정하고 원고를 집필합니다. 특히 사업회의 사전 편찬원은 남북이 집필한 원고를 교차 검토하고 공동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에 실을 최종 원고를 합의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회의 때 북측 편찬원과 함께 단어 하나하나에 더 나은 뜻풀이와 용례를 싣고자 긴 시간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합의하는데, 그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앞서 편찬된 사전들의 뜻풀이를 보완하고 용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뜻풀이를 추가할 때도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는다면요?

공동회의 합의 원고 포함, 30만 7천여 개의 올림말을 실은 가제본은 공동회의 재개 시 북측과 협의를 위해 제작된 사전이고, 3천여 개의 올림말을 실은 겨레말작은사전은 남녘의 청소년과 국민에게 남북한 언어에 대한 실용적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사전입니다. 편찬 목적과 올림말 수, 수록 정보의 양 등 겉으로 보아도 다른 점이 많지만 종이사전을 만드는 일 자체는 모두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일러두기'를 작성하는 일과 겨레말작은사전이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통일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부록을 만들면서 10여 차례나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 제16차 공동회의(2008. 12. 13.~12. 16.) 참석을 위해 찾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다시 공동회의가 열린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북측 편찬원들에게 건강과 그간의 안부를 묻고, 남북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어문 규범이나 종합집필요강의 미합의 사항, 동식물명과 흉내말, 계열어 뜻풀이 형식 등을 북측과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평양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을 다시 먹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MBC 통일전망대 〈북한말 한마디〉 출연(2020. 9.~2022. 1.)

가장 좋아하는 '겨레말'은 무엇인가요?

'새해를 축하하다'. 2015년 12월 중국 다롄에서 열린 제25차 공동회의를 끝내며 북측 선생님들과 2016년에도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와 같은 집필조에 속했던 북측 편찬원이 "초록 선생, 미리 새해를 축하하자요. 우리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자요!"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서로 다른 사회 체제에서 남북의 언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그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사업회에서 제작하는 여러 자료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공동회의 재개를 통해 완간될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겨레말큰사전》이 완성돼 여러분께 닿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남북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학술지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전자공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와 《콤퓨터와 프로그람기술》, 《과학의 세계》, 《정보과학과 기술》



글 **오창윤**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현대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며 어제와는 다른 결과물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그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컴퓨터와 데이터 기술을 위시한 정보통신기술이 아닐까 싶다. 모든 기술의 발전은 많은 학자의 연구 결과물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도 전 세계적으로 매일 발표되는 수많은 컴퓨터학, 정보통신학 등 관련 논문을 발판 삼아 발전하고 있다.

남한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 논문집 또는 '디비피아(DBpia)'와 같은 학술정보 포털 등을 통해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디비피아에 등록된 전자/정보통신 분야, 컴퓨터학 분야의 학술저널 발행기관은 수십 개나 되고 저널에 발표되고 있는 학술 논문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중 한국산업정보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등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등이 이 분야에서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딥러닝 혹은 지능망,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학술지 중에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발행하는 《콤퓨터와 프로그람기술》이 있다. 연속 간행물로서 1년에 6차례 발행된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중앙당 산하 과학기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북한 국내외의 수많은 선진 과학기술 자료들을 모아 발행하고 있다. 《콤퓨터와 프로그람기술》 외에도 《나노과학기술》, 《정보과학과 기술》, 《과학의 세계》 등의 전문 과학기술 잡지들이 이곳에서 발행된다.

특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비교적 최신 발행본을 확인할 수 있는 《콤퓨터와 프로그람기술》은 컴퓨터와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 논문과 기술 자료를 모아 놓은 학술지로 알고리즘 공식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관련 분야의 기초 연구부터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까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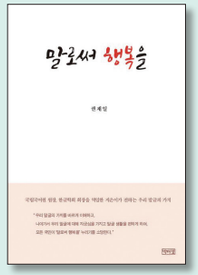
이 글에서 간략히 소개한 남북의 정보통신 분야 학술지들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의 전문 용어 차이가 크고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전공자라 하더라도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의 전문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향후 남북 간 이질화를 해소하기 위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포함한 남북 학술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오창윤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에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부 선임편찬원으로 재직하며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계절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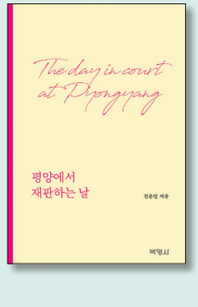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전하는 우리 말글의 가치

『말로써 행복을』

권재일 | **박이정** | 2023. 9.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글학회 이사장, 사업회 이사)의 신간으로 바람직한 말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과 강연 내용을 모아 엮었다. 모두 10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언어의 가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사라져 가는 언어의 보존과 언어 다양성,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편찬 활동과 남북의 언어 차이 극복, 국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두루 다루고 있다. 지은이는 머리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우리 말글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말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말글 생활을 편하게 하며 말로써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북한법 연구자가 상상하는 통일

『평양에서 재판하는 날』

권은민 | **박영사** | 2023. 6.

권은민은 변호사이자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는 북한학 연구자이다. 이 책은 지은이가 수필 잡지 《에세이스트》에 '통일 단상'으로 수년간 연재한 글과 북한법 연구자로서 겪은 이야기를 묶어 낸 수필집이다. 지은이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통일부와 법제처 등에서 남북(통일) 법제 관련 자문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기존 남북한 법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책에는 앞으로 10년쯤 뒤에 남북교류가 자유로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등에 대한 지은이의 상상과 고민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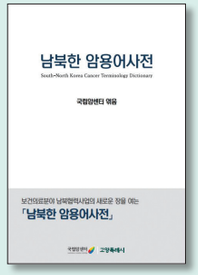


대화로 읽는 국어 만들기의 역사

『우리말이 국어가 되기까지』

김민수 구술 | **최경봉 외** | **푸른역사** | 2023. 4.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가 항상 '국어'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어 말살정책'에 의해 탄압을 받았고, 해방 후에는 무엇을 국어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저자들은 2007년 국어학자 김민수(1926~2018)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와의 대담과 그가 남긴 '증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현대 국어학과 국어 정책의 역사를 탐색한다. 이 책은 '우리말은 어떻게 국어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식민 잔재 청산과 한글 위상 강화, 규범 문법 확립과 근대 어문 개혁의 완결까지 국어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국립암센터 남북 질병 언어 비교연구의 세 번째 결과물

『남북한 암용어사전』

국립암센터 | **고양특례시** | 2022. 12.

이 책은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가 수행한 남북 질병 언어 비교연구의 결과물이다. 평화의료센터는 이 책을 통해 지난 2019년 국립암센터에서 출판한 『우리말 암용어사전』을 기반으로 남북한 의료진 간의 원활한 소통과 북한이탈주민 진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각 진료과에서 고빈도로 사용하는 1,200개의 암 용어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국가 암 전문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보건의료 기반 남북협력사업에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고양시와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 겨레말 소식

〈전국 겨레말 나들이〉 강원 편 행사 개최



사업회는 지난 9월 13일 겨레말TV 프로그램 〈전국 겨레말 나들이–강원〉 행사를 강원도 봉평군 봉평고등학교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봉평고등학교 교사, 학생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겨레말TV 구독자들과 소통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전주, 청주,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도 말로 창작된 문학 작품을 학생이 직접 낭송·낭독했고,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말로 풀어보는 '겨레말 맞히기'를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1부 행사에는 김남극 시인(봉평고 교사)이 초대돼 강원도 말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찬재 학생(봉평고 1학년)이 강원도 말로 창작된 시 「따뜻한 집」(김남극)을 낭송하고 김흥남 마임이스트가 마임으로 시를 표현했다.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가수)가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박두진의 「도봉」 등을 노래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강원도 마음사전』을 출간한 김도연 소설가와 함께 강원 말과 사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김나래 학생(봉평고 2학년)이 산문 「사라져가는 말을 찾아서」(김도연)를 낭독했다. 사업회 최성규 선임편찬원은 1부와 2부 모두 출연해 이야기 손님들과 사전 편찬, 지역어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전국 겨레말 나들이〉는 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민과 소통하고, 남북 및 해외 지역의 겨레말을 집대성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알리는 행사로 현장 영상은 겨레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겨레말TV
겨레말 나들이

사업회, ㈜낱말과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9월 26일, 사업회와 ㈜낱말이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관한 업무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전자사전 연구 및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전자사전에 관한 기술 분야 지원 및 교류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향후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겨레말 어휘 체계 구축과 웹 사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이날 사업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기형 ㈜낱말 대표이사를 언어정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김 대표는 같은 날 개최된 제5회 학술 연찬회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낱말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대표는 20여 년 동안 대규모 언어 자료를 활용한 언어정보 연구를 통해 우리말의 어휘 난이도 체계, 문장 검사기, 한국어 작문 자동 평가 기술 등을 개발했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한글날에 국무총리상을, 2022년에는 제3회 '학범 박승빈 국어학상'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업회 블로그
겨레말 현장

제4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최



사업회는 지난 1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울 페럼타워에서 유네스코와 함께 제4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아래 '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최했다. 민현식 이사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 이번 포럼의 개막식에서는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샤바즈 칸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토착어 자료 구축 활용'을 주제로 열렸으며, 첫째 마당(7일)에서는 칭이 쩡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정보커뮤니케이션 국가전문관과 이숭원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을 했다. 이어 오키나와현의 오키나와어, 미야코어, 야에야마어와 케냐의 스와힐리어, 페루의 케추아어, 대한민국의 경상도어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토착어 사용자의 목소리(동영상)로 들었으며, 각국의 작가들이 창작 과정을 발표했다. 둘째 마당(8일)에서는 이태영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겨레말큰사전》의 남북 및 해외 지역어 수집과 활용', '북한 문화어에서의 방언 수용 양상', '중국어에서의 전문용어 구축과 사용 양상 고찰', '우크라이나의 언어 상황과 언어 정책', '대만의 현행 언어 정책과 실행' 등 세계의 토착어 자료 구축과 활용에 대해 살피고 토착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의미를 되짚었다.

이번 포럼의 현장 영상과 '토착어로 문학하기' 아카이브 영상은 사업회의 유튜브 채널 겨레말TV와 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국제학술포럼
공식 홈페이지

2023년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특별세션 참가



사업회는 지난 12월 15일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치러진 2023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에 공동 주최로 참가했다. '북한의 문화·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동계학술회의에서 사업회는 특별세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겨레말큰사전'을 통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성과와 의의, 그리고 남북한 언어 통합 방안을 학술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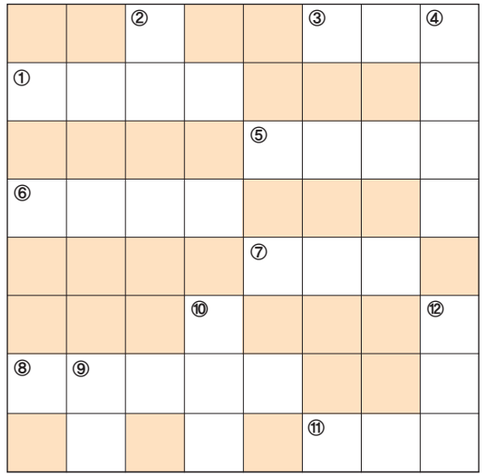
사업회 남측편찬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용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세션에서는 사업회의 김강출 편찬실장('《전자 겨레말큰사전》의 성격과 과제')과, 이길재 수석편찬원('북한 방언의 조사 현황과 문화어'), 이주랑 대리('통일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탈북민 언어 문제 고찰')가 발표를 맡았고 사업회 규범사전 분야 자문위원인 오현아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와 사업회 토박이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정 이음연구소 대표, 통일부의 한정미 하나원 우리말상담실 주무관이 각각 토론을 맡았다.

사업회는 매년 개최하는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과 더불어 앞으로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학계 공감대를 높이고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학술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북한연구학회
공식 홈페이지



겨레말 낱말 풀이는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http://dic.gyeoremal.or.kr)'와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에 수록된 단어로 제작되었습니다.



① 자녀가 낳은 아들을 달리 이르는 북녘말. ○○자식.

예) "내 손주녀석인 새동이가 청이 높은 금빛수닭이라면 너무나 좋아하기에 다녀오는 그곳에서 한마리를 보짐속에 사넣은걸세.…{○○자식이} 더 귀엽다는 옛말 그른데가 없지. 없어."《등경암》(북)

② '날짜'를 북녘의 표기법대로 쓴 것. 남북이 발음은 같고 표기만 다르다.

예) "미혜가 전번날 저에게서 책을 빌려갔는데 도서실에 반납할 {○○가} 지나서 그래요."《숙원》(북)

③ 마른 쌀을 기계에 넣고 열을 가해 높은 압력으로 튀겨낸 것을 뜻하는 북녘말. 북녘에서 '밥알튀기'라고도 한다.

예) {○○○에} 엿물을 섞어 강정을 만들다.《조선말대사전》(북)

④ 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좌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로 흔히 '키 플레이어'라고도 하는 '간판선수'를 일컫는 북녘말. ○○선수.

예) 팀의 {○○선수이며} 주장인 효정의 활약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축구소녀》(북)

⑤ '원적외선'의 북녘말. 한자 '遠(멀 원)'을 우리말로 다듬어 만들었다.

예) 음이온방직제품은 우선 {○○○○을} 내보내여 인체세포를 활성화시키며 피흐름을 좋게 한다.《음이온방직제품》(북)

⑥ 놀이 시설의 하나로 관성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궤도차. '롤러코스터'의 북녘말. ○○렬차.

예) 회전그네, 비행기, {○○렬차와} 같은 갖가지 놀이시설들이 저마끔 여기저기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아이들의 눈길을 잡아끌었습니다.《웅일이의 기쁨》(북)

⑦ 외래어 '칼슘(calcium)'의 북녘말. 북녘 표기법에 따라 적은 3음절 단어이다.

예) 항생제는 비타민B무리와 철, {○○○}, 마그네시움을 파괴한다.《비타민을 파괴하는 일부 물질들》(북)

⑧ '장인어른'을 지칭하는 북녘말로 아내의 친정아버지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 "그 자전거는 내 사위될 녀석이 준걸세. 장가도 들기 전에 {○○○○○대접을} 하려는거지."《불을 다루는 사람들》(북)

⑨ 한글 자음 'ㅅ(시옷)'을 북녘에서 이르는 말.

예) 해방후 'ㄱ, ㄷ,ㅅ'의 이름이 '기역, 디긋, 시옷'이 아니라 '기윽, 다은, {○○}'으로 바뀌였다.《민족글자 '훈민정음'과 그 변화》(북)

⑩ '석이버섯'의 북녘말. 깊은 산중 바위 위에 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예) 나무버섯, {○○○}, 느타리버섯같은것을 채치거나 네모나게 설어서 리용한다.《고명과 그 종류》(북)

⑪ 여성복에서 윗옷과 아래옷이 따로따로 나뉘어 한 벌을 이루는 옷. '투피스'의 북녘말. 북녘 사전에도 '투피스'가 올라있으나 고유어인 이 단어를 더 많이 쓴다.

예) 샤쯔와 치마는 한가지색으로 맞추어 입을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색갈의 {○○○을} 맞추어 입을수도 있다.《여름철 녀성들의 옷색갈》(북)

⑫ 우리 민족의 전통옷. '한복'을 북녘에서 이르는 말. '조선 민족의 고유한 옷'이라는 뜻으로 쓴다.

예) 아름다운 {○○○을} 입는데서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가 바로 색갈을 잘 선택하는것이다.《○○○의 색갈을 잘 고르려면》(북)

정 답

①두벌자식	②날자	③쌀튀기	④기둥선수	⑤먼적외선
⑥관성렬차	⑦칼시움	⑧가시아버지	⑨시웃	⑩돌버섯
⑪나뷘옷	⑫조선옷			

2023년
함께 만드는《겨레말》

2023년 겨레말 겨울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총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제4회 국제학술포럼에서 소개한 토착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겨레말 소식)

①미야코어 ②경상도어 ③케추아어
④함경도어 ⑤스와힐리어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 방법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참여 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당첨자 상품: 문화상품권(5명)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채택된 독자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소식지 독자 이벤트♥

2023년 여름호 독자 의견

'프로폴리스'를 북녘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정답: 벌풀

[집중 탐구] 국민과 통하는 봄
현장 사진과 함께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행사의 이모저모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해 주어서 꼭 함께 참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꼭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_황혜진

[뜻풀이 깁고 더하기] 백로지
막연하게 백로지는 질이 좋은 종이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녘에서는 '갱지'처럼 품질이 낮은 종이를 뜻하고 북녘과는 또 반대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_안동언

[우리말 보물찾기] 옥천 지방의 무뚝뚝한 말속에 깃든 순한 마음들
어머니의 고향이 옥천이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냇내, 게을배기 등 생소한 단어들의 뜻을 찾으며 한 줄 한 줄 읽어 가는데 왠지 모르게 정겹고 마음 따뜻해지네요. _김정훈

[겨레말 사람들] 김강출 겨레말큰사전 편찬실장
'좋은 사전을 만드는 마음'이라는 제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동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좋았습니다. _최다미

[이 계절의 책] 남북 언어생활 부문의 대중잡지
언어생활에 대한 남북의 대중잡지들이 서로 다른 언어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혀,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일을 더욱 앞당기는 데 좋은 자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_전경욱

한눈에 보는 남녘말 북녘말

친절한 남북 언어 검색 서비스
스마트폰 앱에서
남녘말 북녘말을 검색해 보세요!

'생활용어', '표기차이', '의미차이' 갈래별 어휘 검색 서비스,
카드뉴스, 겨레말TV, 겨레말 퀴즈까지 겨레말큰사전에서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겨레말' 또는
'남녘말 북녘말' 검색



애플 앱스토어에서
'겨레말' 또는
'남녘말 북녘말' 검색

www.gyeoremal.or.kr
/gyeoremal1
@gyeoremaltv
@gyeoremalsajeon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